

“가난 때문에 꿈·희망 접는 학생들 없어야죠”

13년째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기부 목포예치과 김성훈 원장

80명에 1억1000만원...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섬 지역 무료 진료봉사도

“뱀씨 하나를 심으면, 가을에 수백배의 알곡을 맺게 마련이죠. 이를 위해서는 농부가 88번의 손길을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88번의 손길 중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13년째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목포예치과 김성훈(57) 원장. 올해도 그의 나눔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목포 지역 고등학생 10명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에 전달했다.

김 원장은 지역학생들이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지금까지 80명의 학생들에게 총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원장이 장학금 기부를 시작한 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통해 기숙사-레슨-도구 등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어려운 아이들을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다고 담임교사에게 얘기하고 장학금 기부를 시작했어요.

기부를 하다 보니 차츰 대학이나 사회에 가셔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보이게 됐죠.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 원장은 장학금뿐 아니라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목포 지역 사회복지시설 성금 기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섬 지역 무료진료 봉사도 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다양한 기부-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가 계기였다.

“세월호가 마치 우리 사회와 같았어요. 우리 사회가 하나의 배라면, 우리는 모두 기관장이나 조타수, 선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인 셈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뭘 해왔을까,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었을까 돌아보게 됐죠.”

김 원장은 그 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금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전남 제1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초 1억원을 완납했다.

그는 뜻이 맞는 치료 의사와 함께 매해 여름 2박 3일씩 전남 섬 지역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기도 했다. 흑산도, 가거도, 하태도 등 보건·진료소가 없거나 배가 뜨기 어려운 지역을 주로 다녔다. 세



김성훈 원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목포 지역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공>

월호 이후로는 진도군을 중심으로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충치 치료나 무료 틀니 제공 등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틀니를 끼고 기뻐하시는 할머니 얼굴을 보면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뿐인 섬마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걸 보면 어르신들 마음까지 치료가 되는 것 같아 보람차죠.”

올해는 그가 지난 1991년 목포에서 개업한 이후

30년을 맞은 해다. 그는 앞으로도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원장은 “작은 도움이나마 아이들이 꿈을 위해 나아가는 힘이 되고,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 또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다. 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동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고 웃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남 출신 가수 홍세민씨 별세

1970년대 인기를 끈 대중가요 ‘흠에 살리라’를 부른 가수 홍세민씨가 지난날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1세.

8일 유족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날 30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1950년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동양공업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가수로 데뷔한 뒤 1973년 발표한 ‘흠에 살리라’는 고인을 대표하는 노래로 꼽힌다.

“초가 삼간 집을 지은 / 내 고향 정든 땅”으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왜 남들은 /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 나는야 흠에 살리라 /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 흠에 살리라’라는 가사를 담았다. 삶의 터전인 흠과 함께 고향을 지키며 살고 싶다



는 이 노래는 1960~1970년대 산업과 흐름 속에 고향을 떠나 도시를 향했던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향수와 함께 목격한 울림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잘 살아보세 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1970년대, 산업과 물결로 너도나도 도시로 향하는 이념 현상이 가속화될 때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노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창 출신 김희수씨 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로 고창 출신 김희수(59·사진)씨를 인정했다.

김씨는 현재 보유자인 아버지 김중대(87)씨에 이어 2대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대를 잇게 됐다. 무형문화재 ‘윤도장’은 전통 나침반인 윤도(輪圖)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윤도는 천문학, 음양오행 사상 등 동양의 우주관과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전통 생활과학 도구로 삼국 시대부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 널리 사용됐는데 특히 뱃사람이나 농민, 묘 자리를 찾는 지관 등이 방향을 보는 데 활용했다.

보유자로 인정된 김희수씨는 부친으로부터 약 40여 년 동안 제작 윤도 기술을 연마했으며 2007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됐다. 특히 대추나무에 음각하는 각



자 작업과 강철을 깎아 지침을 만든 후 훈도에 없는 작업이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공정별 재료, 도구 사용에 전통성이 있으며 평철과 선추의 제작 기술이 숙련도와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보유자인 김중대 씨는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김 씨는 조부와 백부 뒤를 이어 3대째 제작의 기법을 이어왔고 1996년 보유자로 인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영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제2회 서영장학회(회장 조정래)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7일 광주시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렸다. 서영장학회는 미래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총 29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광주 서구 제공>

누리문화재단 김장 나눔 행사

(재)누리문화재단(이사장 이철 전남대학교수)이 최근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했다. <사진> 김장은 ‘온누리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를 이용해 담갔으며, 광산구 지역 취약계층 100여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누리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이철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온누리 텃밭의 1년 농사 마무리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회원가족과 자



일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돼 보람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9	달뜨기	12:06
해질	17:20	달짐	22:43

안개 주의하세요

고기압 가장자리 들며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3/13	보성	흐림	-1/14
목포	흐림	4/12	순천	흐림	3/15
여수	흐림	8/13	영광	흐림	1/13
나주	흐림	-1/13	진도	흐림	3/13
완도	흐림	5/14	전주	구름많음	2/12
구례	흐림	-1/13	군산	구름많음	1/11
강진	흐림	1/15	남원	흐림	0/12
해남	흐림	-1/14	흑산도	흐림	9/13
장성	흐림	1/1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1.0~1.5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8	05:28
		23:32	18:22
		06:10	00:12
여수		19:18	13:04

◇ 생활지수

높음	매우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10(금)	11(토)	12(일)
5/14	5/13	5/10
13(월)	14(화)	15(수)
-1/5	-2/8	2/12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ARS로 참여 060-703-1100.
-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원 무료 상담 1670-9512.
-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터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급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지원신청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

- 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모집
 -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들불봉사자 모집=어르신 들불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부음

- ▲ 최창용씨 별세, 최현호(죽향골 대표)·현일(순천시 조곡동대장)·은숙·현수(광남일보 부국장)·현훈(담양경찰서)씨 부친상, 조정기(조은소리보청기 대표)씨 장인상, 최대길(휴머스온)·동영(문정초교 교사)씨 조부상=발인 10일(금) 오전 10시 30분 분양제일장례식장 202호 061-382-1111.